

# 팜플러스+

선구안

선도거래를 구조한다, 안전하게

선구안 / 박찬영 / 01047443358 / pcx474@gmail.co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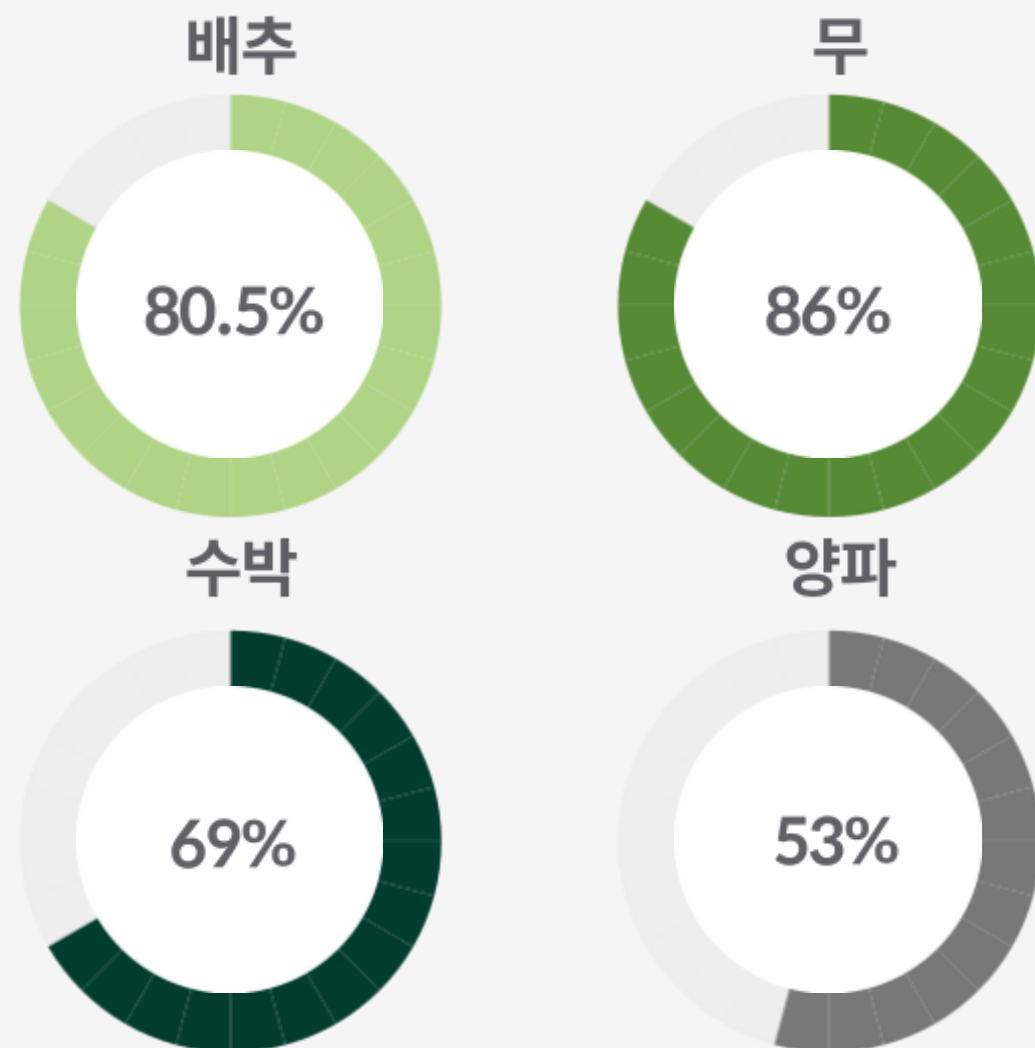
# 받떼기

[생산량과 수요량을 예상하여 미리 가격을 정해 받채로 거래하는 계약]

※동의어: 포전매매, 선도거래

## 02 필요성 및 배경

### 포전매매 비율



출처: 2018년 유통실태종합, 농산물유통정보 (2019)

주요 노지작물 포전거래 시장규모

# 1조 4,400억

(배추, 무, 마늘, 양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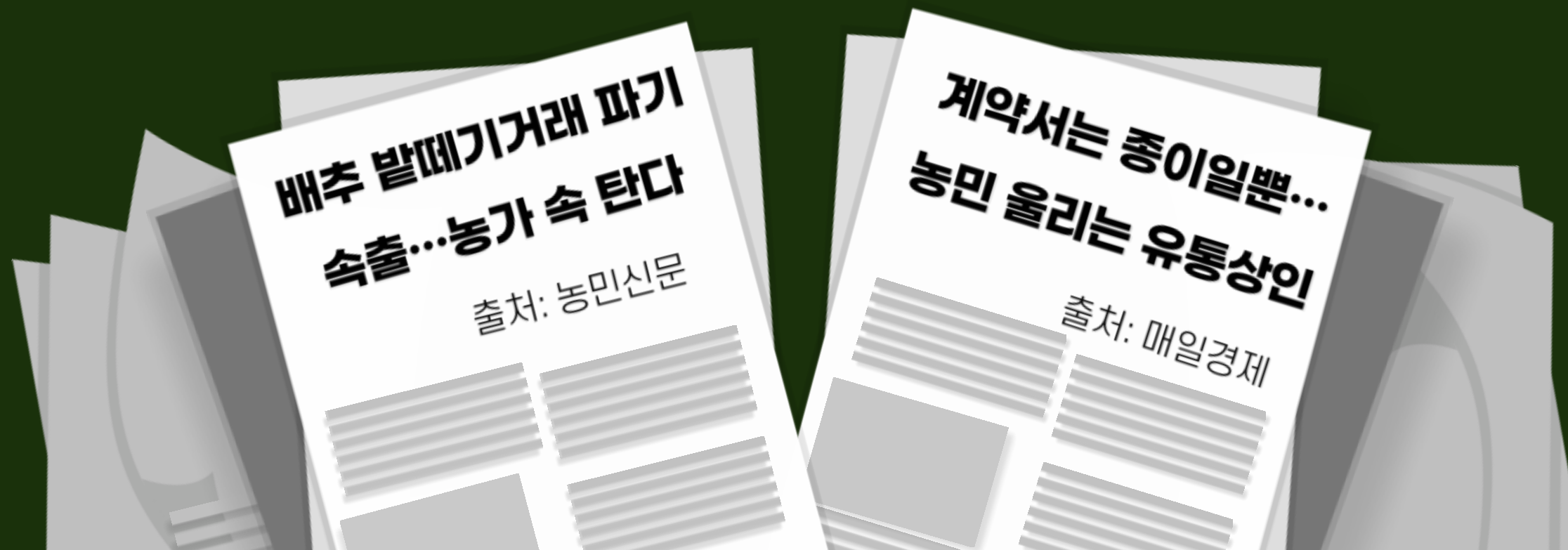
2017~2018 생산량\*포전매매 비율

출처: 통계청 농산물생산조사 (2019)

**저장성이 떨어지는 노지작물은 70~90% 포전매매를 통해 거래,  
산지유통인에게 판로를 크게 의지하는 실태**

## 02 필요성 및 배경

지방자치단체는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지역 농협/ 읍·면사무소 등에 비치하고,  
서면계약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한계가 존재



### 포전매매의 특성상

**계약 불이행, 감액 요구, 잠적, 잔금 지불 지연**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



- “
1. 전체 포전거래의 57%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,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
  2. 양파, 양배추 등 특정 작물을 제외하고는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음
  3. 2013년부터 과태료 부과 이력 전무.  
표준계약서 작성 의무에 법적 실효성 부재
  4. 계약 파기 비율 전체의 약 8.5%
- 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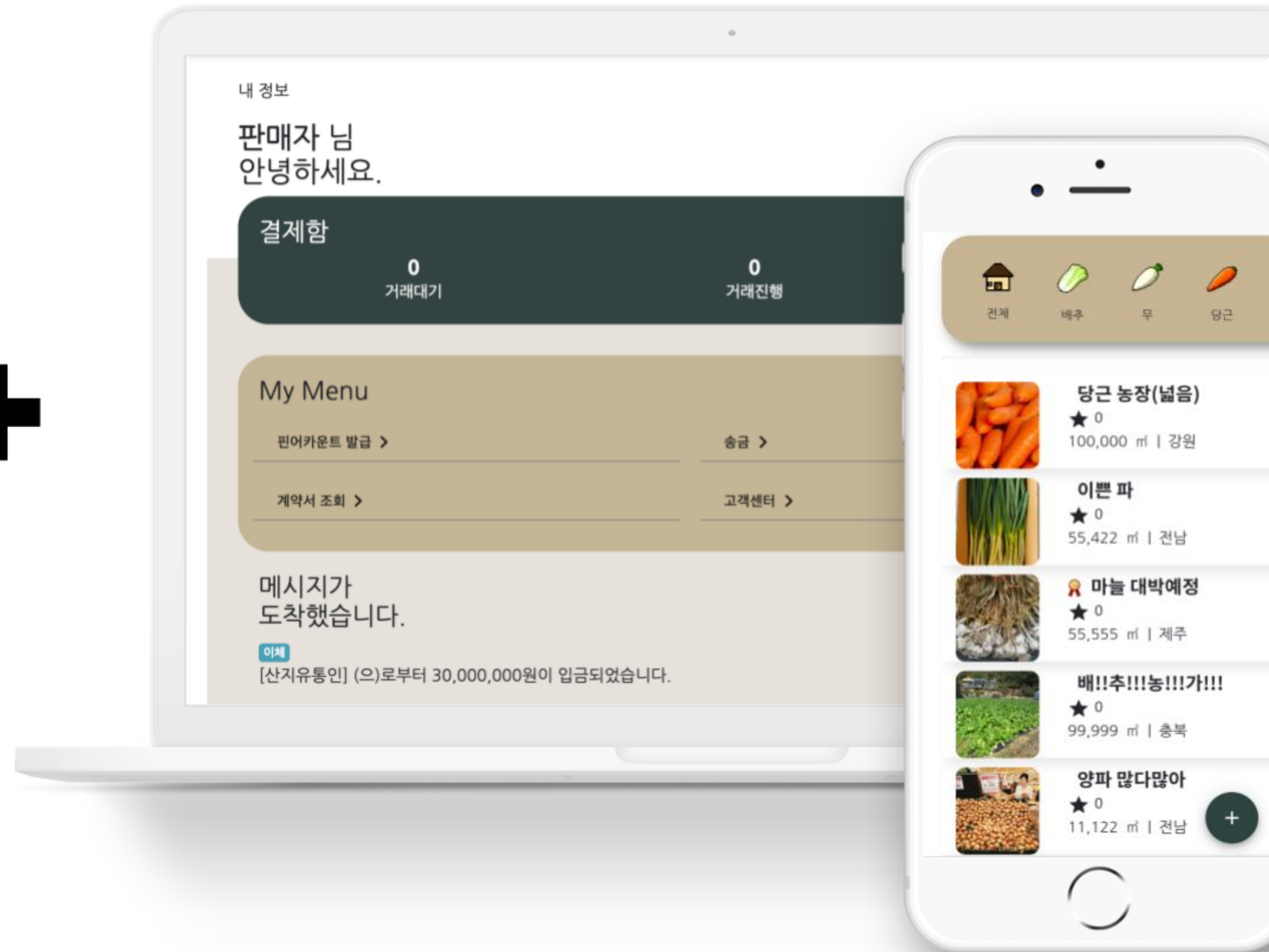
출처: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활용실태 조사분석 연구, 농업경영연구원, 2013  
매일경제 "계약서는 종이일뿐...농민 울리는 유통상인", 문광민, 2018

**산지유통인 대신 농민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수십년 전부터  
지금에 이르기까지 매 시즌마다 발생, **농민의 피해 지속****

**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 
안전한 포전매매가 필요합니다**

발떼기에 안전을 더하다

# 팜플러스+





수익 모델: 총 매매대금의 1% 중개 수수료

예상 매출액: 약 100억원

매출추정: 주요 노지작물 생산량 \* 포전거래비율 \* 포전거래가격 \* 0.7 \* 0.01

배추, 무, 마늘, 양파  
노지작물 재배 농가의 약 70% 예상  
수수료 비율 1%



## 04 비즈니스 모델



### 안전 거래 서비스

- 산지유통인의 매매대금 전액을 선불로 송금받고, 선도거래의 물품 인수도가 완료된 시점에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송금,
- 위험이 없는 안전한 선도거래를 실현



### 안심농가 배지 제공

- 산지유통인이 농가의 계약이행률, 상품의 품질, 경작지 관리 등을 별점으로 평가, 평점이 높은 농가는 안심농가 타이틀 획득
- 안심농가는 수수료 할인, 신뢰도 향상으로 인한 거래량 상승 등 혜택 제공

팜플러스+

### 표준계약서 간편 작성 시스템

- 팜플러스를 통해 상호 간 표준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, 안전한 거래를 선도.



### 접근성 향상

- 매물을 모바일 플랫폼에 직접 등록해 농가의 산지유통인에 대한 접근성 향상
- 등록된 매물은 지역별, 작물별 리스트로 볼 수 있어 산지유통인의 편의를 향상



## 05 시연영상

선도거래의 사각지대, 핀테크로 선도하다



농가의 소득 증대,  
거래량 상승,

거래파기 및 체불의 위험을 회피

팜플러스+



산지유통인은 방문 없이  
다양한 농가 확인 가능

접근성 향상, 비용 절감

발떼기, 이제 안전을 더하다

**팜플러스+**

by 선구안